

보도자료

2025년 1월 24일 전북 2025 - 9호

이 자료는 1월 31일 조건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
1월 24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: 국민연금
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모델링

◆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외부전문가(전북대학교 양성준 교수, 전바울 연구원)
와 “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: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
통합적 모델링”을 주제로 외부연구용역을 수행*

*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하므로
본 자료를 보도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자세한 내용은 <붙임> 참조”

문의처 :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김영주 조사역

Tel : (063)250-4092 Fax : (063)251-4099 E-mail : jeonbuk@bok.or.kr

“한국은행 전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서 지역본부-전북본부로
접속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전북본부

<붙임>

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: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모델링」 주요 내용

※ 자세한 내용은 <참고> 연구보고서 전체 내용 참조

1. 연구목적

□ 저출산, 고령화로 지역소멸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이직으로 인한 인구이동도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

○ 특히 전북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소멸위험*이 크고 직업에 의한 역외이동 비중**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
*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소멸위험이 큼(소멸위험지수 기준, 통계청, 2023)

** 전북 인구의 전출 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3.3%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(통계청, 2023)

⇒ 이에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직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지역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

2. 분석 데이터 및 모형

□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(매년 6월 기준)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및 가입자 데이터에서 개인특성(연령, 성별 등), 사업장특성(규모, 업력, 업종) 등의 정보를 추출하고 이직여부*를 식별하여 사용

* 인접한 2개년의 개인별 사업장 코드를 비교하여 같을 경우 '비이직', 다를 경우 '이직'으로 식별하였으며 이직자 중에서 동일 시도내 이직을 '역내 이직', 타지역 이직을 '역외이직'으로 구분

□ 로지스틱 모형으로 개인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비이직 대비 이직, 역내이직 대비 역외이직 확률을 각각 분석한 후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세 범주(비이직, 역내이직, 역외이직) 간 확률을 통합적으로 분석

○ 또한 시간변동계수 모형을 활용하여 이직행동과 개인 및 사업장 특성 등의 연관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

3. 분석결과

□ 실증분석 결과 개인 및 사업장 특성 등에 따라 비이직 대비 이직 확률과 역내이직 대비 역외이직 확률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

○ (개인 특성별) 연령이 낮을수록, 임금 상승폭이 커질수록, 남성을 중심으로 이직(특히 역외이직)이 활발

○ (사업장 특성별*) 사업장의 업력이 짧을수록, 서비스업**을 중심으로 이직이 활발

* 사업장 규모는 이직여부와 대체로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음

** 여타 산업 대비 제조업의 이직 확률이 가장 낮음

— 이직자 중에서는 사업장 업력이 길수록 역내이직 대비 역외이직이 활발

○ (지역별)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에 비해 역내이직은 저조하고 역외이직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

—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여타 지역(서울 제외)에 비해 역내이직은 많고 역외이직은 적게 나타남

[전북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]

□ 전북지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**앞선 분석과 비슷한 결과**가 나타났으나 연령, 성별 등 개인특성과 이직과의 연관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남

○ 특히 **젊은 남성층의 이직(특히 역외이직)**이 전국 평균에 비해 **활발한 것으로 나타남**

□ 한편 **역외이직을 유출과 유입으로 세분화***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요인별로 유출과 유입 확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모습

* 역외이직을 전북에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'유출'과 타지역에서 전북으로 들어오는 '유입'으로 구분하여 이직행동을 네가지 범주(비이직, 유입, 유출, 역내이직)로 분류

-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층의 유출과 유입 모두 여성에 비해 **활발**한 것으로 나타남
- 임금 상승에 따른 유출 확률은 유입 확률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임금 상승폭이 커질수록 확대
 - 이는 전북지역 내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함을 시사

□ 시간에 따른 이직확률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이직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반면 연령과 이직확률과의 연관성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4. 결론 및 시사점

□ 이직에 따른 인구 유출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지역소멸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

- 분석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울 대비 역외이직 확률이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가능성을 시사

□ 전북지역은 역외이직 확률이 시간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, 특히 여성층의 이직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

-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임금에 의한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